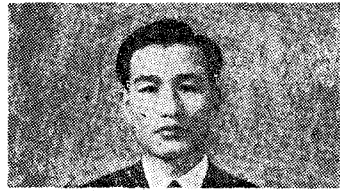


# 食品規格會議에 다녀와서



文 燦 洪  
(保社部食品衛生課長)

## 1. 80年代를 바라보면서

日本이나 美國쯤 旅行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호텔방마다 컬러텔레비가 놓여져 있다.

食品規格會議 自體도 그러하지만 「유엔」산하의 國際會議치고는 무슨놈의 會議가 그러한지는 몰라도 아침 9時 정각에 시작되면 저녁 7時, 심지어는 저녁 8時半까지 會議가 強行된다. 그러자니 「워싱턴」에 있는 大使館과 言論界特派員들까지 많은 親知들을 다놓쳐버리고만 5日동안 계속되는 會議期間동안에 아침저녁으로 혼자서 무료하기 짝이 없었고, 그러자니 호텔방안에서 텔레비를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었다. 워싱턴과 뉴욕, 東京을 거치는 동안 호텔에서 텔레비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놀라운(?) 事實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나름대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美國이나 日本이 거의

비슷하지만 新聞紙上의 廣告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電波미디어의 廣告는 80% 내지 90%가 食品廣告로 메워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나는 집에서 이따금씩 텔레비를 틀었다가 그렇게도 많은 CM들이 짜증스럽게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온다기 보다 눈과 귀로 콕콕 치민다고나 할까, 아니면 괴물처럼 덮어 씌운다고 할까?)는 질색을 해서 다이얼을 돌려 버리거나 스테 텔레비를 꺼버리기 일쑤인데, 세계에서 첫째로 가는 先進國이라는 美國과 日本에서 이 電波미디어의 廣告가 그 文句에 있어서나 質에 있어서 그리고 量에 있어서도 低質大量이라는 면에서 보면 역시 世界第一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더구나 그 廣告의 80%내지 90%가 食品廣告라는데는 나는 깊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 80年代를 향해서 이 先進國들을 따라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80年代에 가서 우리의 所得水準이 지

금의 美國과 日本의 半에도 미쳐 따라가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所得水準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올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때가서의 우리의 生活패턴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나와 우리의 關心事인 食生活의 패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물론 美國이나 日本이 千弗所得水準에서 있었던 食生活이 우리가 千弗所得水準에서 갖일 食生活의 패턴과 꼭 들어맞으란 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經濟生活을 누리게 될 때 우리生活의 狀況이 어떻게든 달라져 갈것만은 틀림없다.

우리의 食品工業은 내가 보기에는 一部 嗜好食品에 있어서는 世界水準에 올라서고 있고 主食의 一部도 物量面에서나 質에 있어서 엄청난 發展을 하고 있다. 우리의 食品工業이 아직은 우리의 生活패턴을 바꾸어 놓을 만큼 發展했다거나 強力해 졌다거나 影響力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食品工業自體의 發展이 곧 우리의 生活패턴을 바꿔놓을 만큼 強力해지거나 影響力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반듯이 그렇지 않은 側面은 물론있다. 80年代를 向한 우리의 經濟生活의 全般的인 擴大는 이번 내가 美國이나 日本에서 보고 온 것처럼 서로 相乘作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食生活의 패턴을 오늘 우리가 展望할 수 없을 그 어떠한 狀態로 끌어 올려놓을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의 食品工業界도 앞으로 80年代를 바라 보면서 우리의 生活樣式에 변모를 가져오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準備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食生活樣式이 千弗所得을 享有할 수 있을만큼 우리의 經濟力을 伸張하는데 기여하도록 積極的으로 食品의 輸出등 經濟力의 伸張에 參與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고 우리食

品行政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번 워싱턴에서 열린 食品規格會議에 다녀오면서 느낀 여러 問題點들 중 하나이다.

## 2. 食品規格會議의 內容

### ◇ 會議의 性格

당초 이 會議에 參席하려고 했을 때, 나는 한편으로는 매우 흥미없는 會議에 참석한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重要한 會議에 참석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왜 이런 엇갈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유엔傘下の 이 會議에서 만들어진 規格이 食品의 各分野에서 64餘個가 되지만 아직 한가지도 우리 政府가 受諾한것이 없으며 受諾한다면 우리國內法規에 큰 混亂이 올것이기 때문에 受諾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고, 이런 意味에서 보면 매우 흥미없는 會議였다.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食品輸出을 해야한다거나, 水産物, 航空事業等이 海外로 활발히 進出된다면 어차피 이 規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會議에 參席해서 우리의 立場을 잘 反映시켜 놓아야 한다는 뜻에서는 매우 重要한 會議가 아닐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食品規格會議은 유엔傘下の 世界食糧農業機構(FAO)와 世界保健機構(WHO)가 共同事業으로 推進하는 「共同計劃事業」이며, 이計劃 아래에 「食品營養委員會」가 있고 이委員會 아래 食品營養에 관한 各種 「分科委員會」가 構成돼 있는데 이 分科委員會에는 主管國家(Author Country)가 指定돼 있다. 이 分科委員會의 主務委員會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食品衛生에 관한 規格分科委員會」이다. 主管國家는 美國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委員會傘下の 各分科委員會中 主務分科委員會가 이번 「食品衛

生에 관한 規格分科委員會」인 만큼 各種分科委員會에서 만들어진 各種規格은 最終적으로 이 分科委員會에 회부되고 이 委員會에서 最終인 審査를 거치면 「로마」에 있는 「食品營養規格委員會」에 보내져서 最終적으로 確定되어 各會員國들에게 이 規格을 受諾하도록 勸告를 하게 된다.

勸告를 받은 會員國은 그 나라의 國內法 또는 國內의 오랜 習慣등에 의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全面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된다.

받아들이는 데도 「全面受諾」과 「條件附受諾」 또는 時限을 定해서 「全面」 또는 「條件附」로 受諾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規格을 受諾한 것이 한 件도 없으며 先進國인 美國도 역시 같다. 내가 個人的으로 물어 본 結果로는 美國은 自國의 國內規格이 이 規格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反對로 歐洲共同市場國家(EEC) 들은 關稅障壁이 없어서 國家間에 商品이 自由로 流通되기 때문에 이 規格을 서로 有利한대로 받아들일려고 하며, 한 나라가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기 때문에 몹시 神經을 쓰며 거의 이 規格을 받아들이는 立場에 있다.

#### ◇ 第11次 會議의 討議內容

이번 第11次 會議는 主管國인 美國의 워싱턴에서 6月 10日~14日까지 5日間 國務省 國際會議室에서 열렸다. 參加國은 23個 會員國과 3個 옵서버國, 1個 옵서버機構(EEC), 그리고 北傀옵서버團에서 68名의 代表들이 參席했다.

우리나라에서는 筆者와 신성오 駐美大使館 二等書記官, 김한모 駐美大使館 水産官등 3名으로 構成된 代表團이었다.

討議된 案件은 모두 12個 案件으로

1. 他分科委員會에서 討議된 各種規格의 再審— 8個 分科委에서의 報告案.
2. 本分科委員會의 事業에 대한 WHO의 活動狀況報告.
3. 닭고기의 衛生的處理過程에 관한 檢討(主管·英國).
4. 달걀의 衛生的處理에 관한 規格檢討.
5. 달걀에 포함된 살모넬라균의 抽出作業에 대한 報告.
6. 조개類(특히 굴)의 衛生的處理에 관한 規格案(主管·美國)
7. 땅콩의 衛生的處理에 관한 規格案(主管·네델란드·美國)
8. 食用개구리의 衛生的處理에 관한 規格案(主管·멕시코).
9. 통조림, 유리容器, 紙包裝內에 包裝된 低酸, 熱處理된 食品에 대한 微生物檢查基準의 改正案.
10. 急速冷凍된 果實, 치즈 및 이들 쥬스類의 衛生的處理에 관한 規格案의 檢討.
11. 其他事業 및 將來事業

등이었다.

討議된 具體的案은 앞으로 報告書가 作成되는데로 關係機關에 配布할 計劃이기 때문에 內容은 省略하고, 討議過程에서 論議의 焦點이 되고, 우리 食品工業界가 앞으로 關心을 기울여야 할 問題들에 대해서 簡略하게 적어보기로 한다.

첫째 議題의 討議는 두시간도 안되어 끝났으며, WHO의 報告事項도 20餘分으로 끝났다. 그러나 「닭고기의 衛生的處理規程」에 들어가서는 무려 하루하고도 반나절의 時間을 消費했는데 이것 때문에 會議는 밤 8時半까지 계속되고 다음날은 밤 7時, 8時가 보통이었다.

이 案件은 간단히 말하면 屠鷄場設置와 거기서 닭고기를 빼내는 過程의 衛生的處理問題인데 유럽共同市場代表간에 맹렬한 言爭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손씻는 手洗器具는 工場門 앞에서 固定돼 있어야지, 들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여서 는 안된다〉

〈담內臟은 處理되면 30°C의 自動式 水洗발브에 의해 씻어져야 한다〉

이런 問題를 두고 EEC國家代表들은 서로 可타 否타를 主張하면서 時間가는 줄을 모른다. 말하자면 어쨌던 自國의 施設基準에 맞도록 해서 自國의 利益을 옹호하자는 심상치 않은 싸움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現在 釜山에서 屠鷄場을 設置하고 닭고기의 販賣를 許可制로 해달라는 要請이 있지만, 政策當局로서는 現在 數 10萬庶民의 生計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屠鷄場에 대해서 現段階에서는 施行할 수 없다고 해서 이를 反對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 問題를 두고 이틀동안이나 꼬박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여간 썩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言及해 둘것은 이자리에는 不請客이 읍서버로와 있다는 事實이다. 유엔읍서버단인 北傀側이와 앉아 있다. 그들도 어지간이 지루한지 몸을 꼬면서도, 왔으니 자리를 뜰 수 없는지 꼬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不快하기 짝이없고 물골을 봐도 그리 웅하지 못한 주제인것을 보면 가엽기도 했다.

食用개구리 問題가 한창 論議될 때이다. 네델란드 代表가 發言을 申請하더니 하는 말이 〈쿠바에서 상당량의 개구리고기가 유럽으로 輸出되는데, 한번은 쿠바사람에게 개구리를 어떻게 飼育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쿠바사람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보이더니 「아무 곳에서나 잡으면 되는 것이니 飼育은 무슨 飼育이냐」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떡개구리, 떡개구리, 청개구리를 마구 잡아서 내놓는데 飼育에 대한 規制가 없이 衛生處理規格만 만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會議場內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議長인 읍손博士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쿠바(읍서버)代表에게 說明을 하라고 하니, 쿠바代表는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國內法으로 飼育에 관한 規制가 있다〉고 했다. 누구도 더 추궁하지 않았다.

國際的 망신을 당한다는 것이 별것이 없다. 우리도 80年代의 100億弗輸出을 향해서 가자면 食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工業製品도 쿠바式의 망신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會議期間中 「조개類의 衛生處理」案을 草案한 美國 FDA의 헛트氏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昨年 겨울 우리나라 H社製品인 굴통조림이 美國으로 輸出되었다가 腐敗된 製品이 나와 말썽을 빚은 적이 있었고, 헛트氏도 세차레나 우리나라 굴養殖과 製造工場을 보러온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事情을 잘알고 있는 처지였다.

헛트氏는 나에게 두가지만 忠告를 하겠다고 했다. 첫째 〈한국은 훌륭한 굴의 資源을 갖고 있는데 도무지 衛生觀念이 不足한것이 탈이니 부디 衛生을 徹底히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競爭을 해서 값을 내리고 덤핑을 하는 일은 하지말라는〉 것이었다. 競爭을 해서 값을 내리고 싸구려를 만들어 팔아서 腐敗食品이 나들면, 行政府에 있는 自己들 立場도 대단히 難處해서, 韓國의 굴輸出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議會에서는 〈왜 그런 不良食品을 들여와서 國民들에게 먹이느냐〉고 공박하니 그 짐을 크게 참작해달라는 이야기였다.

더 부언할 것도 없이 나는 헛트氏의 忠告를 全的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食品工業이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가야할 것인가?

그 指標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生覺했다.